opusdei.org

## 무한히 자비로우신 아 버지 하느님

오푸시 데이 단장은 '하느님의 자녀'라는 것에 관해 숙고하신 다. (출처 : Itinerarios de vida cristiana, Javier Echevarría, Planeta, 2001, 1장)

2006-6-13

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. 비록 불행히도 많은 이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복음은 이러한 진리를 분 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. 예수 그

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아들, 딸이 되 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보화입니다.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 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매 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. 증오나 차별이 없는 세상, 중상이나 모략이 없는 세상이 되어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가 지배하게 될 것입니 다.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들 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은 즉시 진정한 형제애로 이끌기 때문에 학대와 조종 이 들어설 자리가 없으며 대신에 연 대의식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......

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. 그 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, 무한하신 애정으로 우리를 굽어보십 니다. 그분의 섭리적 보살핌이 우리 를 떠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. 간혹 그분의 섭리적 손길이 느껴지지 않거 나 그분께서 이끄시는 방식을 이해하 기 어려울 때도 분명 있지만,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자애로운 손길에 우리 자신을 신뢰하며 의탁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견지에서 평범한 남녀로서의 우리들의 삶은 그 진정하고 깊은 차원의 의미를 띠게 되며 초자연적이면서도 인간적인 풍요로움이 넘치게 됩니다.

삶이 무의미하고 단조롭다는 느낌,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들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느 껴지는 감정 따위는 사라져버릴 것입 니다.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일, 가 정생활 그리고 일상적인 관심사를 다 른 이들에게 기쁘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로 이 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종교를 어 떤 정해진 규율들을 완수함으로써 하 느님의 마음을 누그러트리는 차원으 로 격하시키고 마는, 한편으로는 바 리새이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도덕적 으로 엄격주의적이기도 한, 사랑이 없고 경직된 태도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. 또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피상적인 태도나 형식적인

태도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.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심을 인식하며사는, 즉 하느님의 자녀임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형식적인 종교관이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.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은 우리하느님 아버지의 자애로운 섭리와 함께 합니다. 하느님께서 언제나 당신자녀들 곁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결코 혼자이지 않습니다.

우리가 우리 지성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들도 분명 만나게 될 것입니다.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 믿음으로부터 오는 편안한마음을 지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. 하느님께서는 당신의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그 아드님 안에서 당신의 아들, 딸이되도록 하시고, 그 아드님을 관상함

으로써 무한하신 당시 사랑을 알게 되도록 하셨습니다. 성부께서는 우리 인간 본성을 취하시고 우리 인간 역 사 속으로 들어오신 영원하신 당신 아드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당신의 부성(父性)을 드러내십니다. 그리스 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 서 우리에게 성부를 계시하시고 우리 로 하여금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깨닫도록 하십니다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muhanhi-jabirousin-abeoji-haneunim/ (2025-12-16)